

서울 강북도, 경기 광명도 '국평' 분양가 12억원이 뉴노멀

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전용 84㎡ 12억에도 청약 몰려 고분양 논란 광명 단지도 완판 수도권 집값 들썩에 물량 소진

앞으로 서울 강북 지역 뿐만 아니라 경기도 광명도 '국평형'인 전용면적 84㎡의 분양가는 12억원이 하한선이 될 전망이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일던 곳도 청약경쟁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미분양이 났던 단지들은 완판 행렬이 이어졌다.

17일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장위6구역에 재개발해 들어서는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이 35대 1로 집계됐다. 365세대 모집에 1만2830명이 청약하면서 전 주택형이 1순위에서 마감됐다. 전용 59㎡B와 84㎡A가 각각 44대 1, 42대 1로 경쟁률이 높았다.

앞서 진행된 특별공급 청약 경쟁률 역시 평균 14.79대 1로 집계됐다. 353세대 모집에 5223명이 접수했다. 유형별로는 44세대가 배정된 59㎡A형 생애최초에 3000명이 넘게 몰리며 경쟁률이 69대 1에 달했다.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VIEW, 트리우스광명 분양 홈페이지 취합.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중위 입지인 성북구에서 국평 12억원 분양가가 무리없이 소화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다른 지역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의 3.3㎡(평)당 분양가는 평균 3507만원이다. 평형별로는 최고가 기준 전용 59㎡가 9억6799만원, 전용 84㎡가 12억1100만원이다.

몇 달 전만 해도 주변 시세보다 높았지만 최근 집값이 들썩이면서 분양가

가 오히려 경쟁력을 가지게 됐다.

내년 3월에 입주할 앞둔 '장위자이레디언트'의 입주권은 전용 84㎡가 지난달 12억1000만원에 거래되어 신고가를 기록했다. 기존 준신축들의 가격도 뛰었다. 장위뉴타운 대장주였던 꿈의 숲아이파크가 지난달 전용 84㎡가 11억9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해 고분양가 논란으로 줄줄이 미분양이 났던 광명 단지들은 남은 물량을 모두 팔아치웠다. 모두 국평이 12

억원 안팎이었던 곳들이다.

광명 2구역에 들어서는 트리우스 광명은 최근 완판을 공지했다.

트리우스 광명을 총 3344가구 규모 대단지로 작년 10월 730세대에 대해 청약을 진행했지만 100세대 이상이 팔리지 않고 남아 있었다. 당시 분양가가 전용 84㎡가 11억5000만원, 102㎡가 13억6000만원으로 다소 비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올해 2월 105세대에 대한 임의공급 청약을 시작으로 수차례에 걸친 청약에도 남아있던 분양물량은 최근 빠르게 소진됐다. 인근 단지인 광명센트럴 아이파크의 전용 84㎡가 지난 4월 11억7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VIEW 역시 남은 분양물량을 모두 소진했다. 분양가는 전용 84㎡가 12억3500만원이었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4190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1%나 올랐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706만4000원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보험 브리핑

삼성생명 다모은 건강보험 S3 암 치료 보장 강화

삼성생명이 암 치료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 고액 항암치료 8종 최대 10회 보장
삼성생명은 암 치료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한 '삼성 다(多)모은 건강보험' 필요한 보장만 쏙쏙 S3'를 오는 18일부터 판매한다고 17일 밝혔다.

'프리미엄암직접치료보장' 특약을 신설해 암 치료 보장을 강화했다. 암직접치료보장특약과 함께 가입할 수 있고 가입 후 90일이 지나면 표적약물, 로봇수술 등 고가의 최신 항암치료 8종을 최대 10회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항암치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재해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항암약물·방사선치료후 72대 질병 및 재해보장' 특약은 업계 최초로 항암치료 후 발생 가능한 72대 질병 및 재해를 보장한다. 또한 '종합병원이상암직접치료통원' 특약을 신설해 기존 상급병원에만 차등 제공되던 보장을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다(多)모은 건강보험 S3는 최신 암 치료 보장을 강화하고, 암 치료 이후 발생 가능한 질병과 재해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며 "매년 증가하는 암 치료비에 대비하기에 최적의 암보험 상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해상 약제 종류 구분없이 항혈전제 치료 보장

현대해상이 혈전치료 보장 담보를 신설했다.

◆ 특정순환계질환 관련 혈전생성을 막는 약물치료 보장

현대해상은 뇌경색, 급성심근경색 등 순환계질환의 주요 원인인 혈전 생성을 막는 '항혈전제(항응고제, 항혈소판제)'의 치료를 보장하는 담보를 업계 최초로 신설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담보는 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주사나 경구 투약 방식의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사용하는 치료를 받았을 때 각각 연간 1회에 한해 보장한다.

장기 치료가 요구되는 순환계질환에 맞춰 최초 1회가 아닌, 연간 1회로 매년 지급하는 형태로 개발했다. 업계 최초로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하는 의약품 분류 기준(ATC코드)을 도입해 항혈소판제 관련 새로운 의약품이 도입되더라도 동일하게 보장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경구 투약이든 주사제든 치료방법을 구분하지 않고 보장하고 약제 종류에 상관 없이 통합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고객에게 도움이 되고 보장 공백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웹테크 공들이는 한화손보, '女 특화보험 명가' 노린다

라이프플러스 웹테크연구소 1주년 난소검사부터 유방암검사 특약 등 여성연구·특화종합보험 개발 주력

한화손해보험이 여성 특화 상품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여성에 대한 전문 연구를 바탕으로 신규 담보를 선보이면서 여성보험 시장 선두주자 자리 굳히기에 나섰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손해보험이 설립한 '라이프플러스(LIFEPLUS) 웹테크연구소'는 지난 6월 1주년을 맞았다. 웹테크연구소는 나체법 한화손해보험 대표이사의 여성 특화 전략에 따라 보험업계 최초로 설립한 여성보험 연구소다.

웹테크연구소는 1년간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여성 연구와 여성 친화적인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등 여성 중심 사업의 싱크탱크(Think-Tank)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금융권 최초로 여성 전문 연구소인 라이프플러스



서울 여의도 한화손해보험 사옥. /한화손해보험

스 웹테크연구소를 중심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보낼 수 있도록 여성 소비자들의 연령대별 보장 요구를 반영한 특화 종합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웹테크연구소는 지난해 7월 '한화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으로 첫선을 보인데 이어 올해 1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2.0'을 출시했다. 차별원과 협업으로 기획한 유방암 특약과 업계 최초로 '난소기능검사'와 '난자동결시

술 우대서비스'를 선보여 배타적 사용권 3개월을 획득해 상품성을 인정 받았다.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은 지속적인 판매 호조에 힘입어 올해 3월 신계약 매출 기준 100억원을 달성했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여성 소비자들의 연령대별 보장 요구를 반영하는 특화 상품, 서비스가 고객의 수요에 부응했다"며 "여성의 웰니스를 리딩하는 회사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 차별화된 브랜드 경쟁력을 가져가겠다"고 밝혔다.

여성 건강보험 인기로 한화손해보험은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한화손해보험의 올해 1분기 당기 순이익은 1249억원으로 전년 동기 995억원 대비 25.5% 증가했다. 또한 신계약보험계약마진(CSM)은 1986억원으로 49% 증가해 전체 손보사 중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여성 보험 시장 선두주자인 한화손해보험의 뒤를 이어 다른 보험사도 여성보험 잇따라 출시했다. NH농협생명

은 지난 5월 여성전용 상품으로 '핑크케어NH건강보험(무배당)'을 선보였다. 해당 상품은 출시 한달만에 판매건수 2만건을 돌파했다. 신한라이프도 지난 6월 '신한건강보장보험 ONE더우먼'을 여성특화 상품으로 출시했다.

후발주자에 맞서 한화손해보험은 특화 상품 차별화 전략을 내세웠다. 그동안의 여성보험 시장에서 살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성 특화 선두주자로서 우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화손해보험은 지난 6월엔 유방암 예후예특약사비 특약이 배타적 사용권 6개월을 얻은 데 이어 이달 초 한화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2.0을 개정 판매해 차별화의 서막을 알렸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웹테크연구소와 같이 여성에 대한 전문 연구를 바탕으로 타 보험사에 없는 신규 담보들을 선보이면서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며 "차별화 전략을 통해 여성 보험 시장을 리딩하고 앞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당국,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

위법·부당사례 공유로 재발 방지

금융감독원이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개최하는 수도권 대부업자 대상 설명회를 시작으로, 오는 9월 말

까지 부산 등 5개 주요 도시에서도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올 10월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대부업계에 안착되도록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불법업자의 불법대출·추심 등 위법·부당 사례를 전파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검사시 확인된 주

요 법규위반 사례 공유 ▲업무시 유의 사항 교육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안내 ▲대부업 관련 유의사항 전파 ▲신용정보 집중제도 안내 등으로 구성된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대부업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채무조정 제도 등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신설 제도를 정착시켜 대부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업계에 대한 신뢰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향후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채널 등을 마련하는 한편, 법규 이행 여부 등을 지속 점검하고 미흡사항 등은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5일 금융위원회,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연수를 실시했으며, 대부업 관리·감독 유의사항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